골목대장과 동네북

(마18:1~4)

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2.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골목대장과 동네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골목대장과 동네북'
골목대장은 그 동네에서 노는 아이들 중에 우두머리 격을 말합니다.
주먹다짐이 다른 아이들보다 세서 우두머리가 됐던지, 아니면 어린아이들 세계에서 나름대로의 지도력이 있어서 골목대장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 동네 노는 아이들 중에 우두머리가 골목대장입니다.
반대로 동네북이다 그러면, 모든 어린아이들이 그 아이만 유독이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여겨서, 그저 길을 지나가다가도 괜히 뛰어와서 이유 없이 한 대 때리고 가고, 그럼 엉엉 울어야 되고 하는 아이가 동네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노상에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나라를 독립시켜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 통치해 나가실 때에, 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냐? 라는 것을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런 자가 큰 자가

아니겠느냐? 이러이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서로 다투었다 그래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물어봅니다.
천국,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가 펼쳐진 천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은 천국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왕 노릇 하실 때에, 옛날 다윗처럼 이 땅에서 왕 노릇 하실 때에 누가 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의미가 변하지 않게 번역을 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이라는 동네에서 골목대장이 되면 그 사람은 동네북인 거다, 영적으로 보자면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냐? 그러면 하늘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거의 동네북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거꾸로 얘기했죠?
주님은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거꾸로 '이 세상에서 골목대장이 되면 동네북이다', 마찬가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동네북처럼 보이면 실제로 영적으로는 골목대장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낮춘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낮추는 거냐?
우리가 막연하게 겸손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자리에 있는 분이 낮춘다는 게 뭐냐? 재벌총수가 낮춘다는 게 뭐냐? 그리고 또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말단사원이 낮춘다는 건 또 뭐냐?
그 사람도 어쨌든 낮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춘다는 게 뭐냐?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낮추면 천국에서 왜 큰 자가 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요, 그걸 알아서 어떻게 낮출 것인가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다, 낮추면 커진다.
여러분, 이 크다 낮다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이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NBA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의 평균 키가 한국 프로농구 선수들보다 더 높다고 할 때는 키가 기준이 되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재벌총수가 중소기업 사장님보다 더 높다 그러면 그 높다는 내용이 뭐가 됩니까? 수입이 되요, 수입, 수입이 더 높은 거지요?
그 다음에 교수가 조교보다 높다, 조교가 학생보다 높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요? 학식이 내용이 됩니다, 높다 낮다 하는 것의.
그럼 주님께서 여기서 낮추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크다, 작다, 높다, 낮다는 그 기준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도 아니고 인도와 같은 계급사회도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는 이 높음과 낮음이 있고,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게 있어요.

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낮춘다는 것은 무엇이냐?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시면서, 낮아지라고 낮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이기에 어린아이처럼 되면 낮추는 게 됩니까?
어린아이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가치를 아직 마음이 붙잡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요즘은 애들이 빨라서, 제가 그 캠리 자동차 10년이 넘은 낡은 자동차를 갖고 있을 때, 지금 팔아 버렸습니다만, 그 자동차를 세워두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한 초등학교 3,4학년쯤 되는 애들이 와 가지고 지나가다가 '어! 이거 캠리네~' 하면서 빙빙 돌아봐요.
캠리라는 차가 수입이 잘 안 될 때였어요, 맨~ 벤츠나 BMW 그리고 도요타 에서도 렉서스정도 고급차만 수입이 될 때, 캠리라는 걸 애들이 못 봤죠, 근데 들었나 봐요.
벌써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가 마음에 결탁이 돼 버린 상태입니다.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죠, 몸만 어린아이고 마음만 어린아이이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에 눈뜬 상태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서 떼어 내라는 얘깁니다.
마음의 결탁을 끊어내라는 얘기에요.
이 세상의 가치에 눈뜨기 전의 어린아이 상태로 돌이켜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진짜 어린아이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이 되어서 다 알았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떼어내어서 세상이 좋다는 가치에서 자유로워지라 이겁니다.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작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높다, 낮다'라고 하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그 높고 낮음을 측정할 수 있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 첫 단계에 올라서면, 이게 내 마음이 이 세상의 가치에 눈떴다는 얘기에요, 마음이 세상의 가치와 결탁이 됐다는 거지요.
일단 올라서면 누구나 다 그 사닥다리에서 위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닥다리를 타고나면 위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본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사닥다리를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가치에 눈뜨고 나면은 사닥다리를 올라타 가지고, 옆에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발버둥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다른 사람들 소나타 탈 때 나 그랜저타고, 다른 사람들 그랜저 탈 때 나 에쿠스 타니까… 올라가는 거지요 계속.
다른 사람들 지하철역에서 파는 백 살 때 나는 명품백 살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뭐 할 때 나는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가치의 사닥다리가 있어요.
가치의 사닥다리위에 올라 가가지고 거기서 위로 위로 올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가서 낮아지라'는 얘기는, 사닥다리에 올라탄 상태에서 아예 내려오라는 얘기에요.

이 세상 가치의 사닥다리에서 빨리빨리, 높이높이 올라가서 이 세상이라는 골목에서, 세상이라는 동네에서 골목대장이 되려 하지 말고, 아예 이 세상의 가치의 사닥다리에서 내려오라는 얘깁니다,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다시 말해, 그 사닥다리에 올라타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가치에 눈뜬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 사닥다리에 아예 올라타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수입이 높나 낮나 하는 걸 측정할 수 있는 사닥다리에서 아예 내려오라는 겁니다.
학식이 높나 낮나 하는 것에서 아예 내려오라는 거예요.
지위가 대통령이냐 장관이냐 뭐 구청장이냐, 이 지위, 높낮이를 측정할 수 있는 사닥다리에서 아예 내려오라는 겁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돌이키라는 얘기는, 낮추라는 얘기는 사닥다리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구청장님이 맨 처음에 동회직원으로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을 그저 유지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 초심을 유지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건 아예 그 사닥다리에서 내려와서 사닥다리의 삶에서 무관하게 되라는 얘깁니다.
이게 어린아이처럼 돌이키는 거고 낮추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낮춘다는 얘기는, 사닥다리에서 아래단계에 머물라는 게 아니라, 아예 사닥다리에서 내려와서 그 가치와 무관하게 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가치, 높아진다는 가치,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는 가치,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라는 가치, 이 모든 가치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라는 가치,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로부터 완전히 무관한 마음이 되라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돌이키라는 얘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세상의 가치의 사닥다리에서 골목대장 되려 하지 않고, 우두머리 되려 하지 않고 내려와 버리면 그게 왜 천국에서 큰 것이 될까요?
사닥다리에서 내려오면, 가치의 사닥다리에서 내려오면 왜 그게 천국에서 큰 것이 될까요?
어린아이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수표가 돌아와 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는 초상집이 됐어요, 마음이.
근데 그저 만석꾼 망해도 3년 간다고, 아무리 부도가 났어도 그냥 애 먹을 밥, 애 먹을 옷 입혀주고 그저 가정 따뜻한 방에서 재워주고 학교 보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기뻐요, 부모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가치로부터 무관해지는 겁니다.
부모만 있으면 초가집에서도 아이는 까르르~ 웃어요.
부모가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뭐 화가 나가지고 부수고 깨고 술 먹고 들어와서 깽판치지 않는 한, 아이들은 부모가 건전하게 가난하든 뭐 부자든 있으면 그냥 그게 행복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겁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는 천국과 연관 하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무관하게 하나님아버지와 주님으로 행복한 것이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돌이켜 된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가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막강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돈이면 돈, 지위면 지위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얼마나 막강해요.
그 지위, 그리고 건강의 힘, 미모의 힘, 학식의 힘 막강합니다.
근데 이것 다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무관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은, 세상의 가치들이 갖는 힘을 졸로 여긴다는 얘기에요.
그 세상의 가치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완전히 모멸한다는 얘깁니다.
그거 없이도 행복하다는 얘깁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난 것을 우리는 겸손, 겸비라는 차원에서만 자꾸 이해를 하는데, 그 겸손, 겸비의 행동의 의미가 겸손, 겸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왕들이 태어날 때는, 왕자로 태어날 때, 전~부 황금으로 떡칠을 해 놓은 왕궁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황금으로 도배를 해버린 왕궁이라고 하는 현실의 힘을 졸로 여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It is nothing 이라는 얘깁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 세상 임금들이 힘을 모아서 이루어 놓을 수 있는 세자가 태어나는 환경, 이 세상 왕들이 할 수 있는 이룩할 수 있는 세자의 환경,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얘깁니다.
주님이 크신 분이세요.

수가 성 여인을 붙들고 얘기 하십니다.
배고파 죽을 뻔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수가 성 여인이 누구인지 다 아셨어요.
그 동네에서 다섯 번, 여섯 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어서, 부도덕하고 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그 여자를 경시하고 경멸할 때였습니다.
그런 여자를 붙들고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시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그 여인이 기뻐 뛸 때에 그 여인이 당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시고 지친 몸에서 소생하십니다.
제자들이 왔을 때 쌩쌩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버린 여자입니다.
동네북 같은 여자에요, 이 사람이 말로 씹고, 저 사람이 말로 씹고, 저 사람이 손가락질로 모멸하고 동네북 같은 여자 하나 붙잡고 앉아서 기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기쁜 상태가 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왜 크신 분이십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200만 명을 모아놓고 들판에서 집회를 하실 때 헬리콥터로 그 강단에 서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광경을 스크린으로 다 보여줍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복음전도의 그 사역 활동내역을 보여주면서 모두가 박수치고 경악을 해요, 200만 명에 헬리콥터가 날아왔어요, 사람들은 와~와!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큰 걸까요?
수가 성 여인 하나 놓고 만~족해 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크신 걸까요?

100만 명, 200만 명 집회라야 크다고 생각하고, 십만 명 돼야 큰 교회라고 생각하고 행복해하는 목사님들 동네북이에요.
이 세상에서 동네북이라고요, 많아야 된다는 세상의 가치에 먹힌 겁니다.

예를 들어, 명품 백이 아니면 안 되는 마음, 그래서 돈도 있고 해서 명품 백을 사 들고야 마음이 편한 마음, 이거는 명품 백한테도 얻어맞는 동네북이라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명품 백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골목대장이 됐다고 생각하지요?
이 세상에서의 가치의 사닥다리에서 위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명품 백이라는 가치에 얻어맞아서 마음이 KO된 상태입니다.
명품 백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큰 자입니까? 명품 백이 있어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이 큰 자입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억대의 자동차를 타지 않으면 체면이 안서서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동서가 BMW 300시리즈 샀으면 나는 벤츠 500시리즈는 사야 됩니다.
이미 동네북이에요, 자동차라는 가치에 의해서 얻어맞아서 다운 됐습니다.
다른 애들, 친척집의 다른 아이들보다도 우리아이가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만 합니다, 일류대학이라는 놈한테 얻어맞아서 일류대학이라는 가치에 얻어맞아서 마음이 벌써 다운된 상태입니다.
일류대학을 들어갔거나 못 들어갔거나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엄마가 큰 엄마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이겨먹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치의 사닥다리에서 누가 더 많이 올라가느냐, 누가 더 위로 위로 올라가서 이 세상이라는 동네에서 골목대장이 되느냐?
그 골목대장이 되면 될 수록 세상의 가치라는 놈들한테 얻어맞은 동네북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겁니다.

왜 교인 10면 놓고 행복해 하지 못하십니까? 목사님!
그러면 지는 거예요, 많아야 된다는 세상의 가치에 두들겨 맞은 동네북이 되는 겁니다.
많은 교인이 와야 행복한 것은 이미 진 자에요, 이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돌이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인데 교인이 많아야 행복하다, 어린아이 자리를 지나가 버린 거고 어린아이 자리로 돌이키지 못한 겁니다.
왜? 세상의 가치에 녹다운된 상태이니까,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먹혀 버렸으니까…

10명만 와도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숫자라는 세상의 가치를 녹다운시켜버렸으니까 천국에서 큰 자 아닙니까?
명품 백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 행복한 여자 그 여자가 명품 백이라는 가치를 이겼으니까 그 만큼은 큰 사람 아닙니까, 그 만큼은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의 가치의 사닥다리에서 아예 내려올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의 상태처럼, 그 가치에 눈뜨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죽어라고, 죽어라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죽어라고 십자가에, 사닥다리 대신에 세상의 가치의 사닥다리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마음이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면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때려눕히고, 그 가치들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있어도 그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무조건 명품백 사고, 무조건 외제차 수억대짜리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거 사가지고 폼 낼 이유가 없으니까.
세상의 조직 안에서 지위에 따라서 필요한 차가 주어질 수도 있겠지요, 타세요.
그러나 내 마음이 거기에 매여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교인이 적기 때문에 불행해 하십니까?
목사님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아직 못 얻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 아니하면, 세상의 가치로부터 무관하게 오직 하늘 아버지만 계시면 행복하다는 상태가 될 수 없다면, 세상의 가치를 이기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동네북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큰 교회를 해서 행복하든, 작은 교회를 해서 불행하든, 작은 교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하겠다는 꿈 때문에 용기를 갖고 살던 다~ 동네북인 거지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 붙잡고 동네북의 자리에서 빠져 나오시고, 부모만 있으면 행복한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천국을 이 세상에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의 사닥다리에서 아예 올라타지 않고 내려오는 것, 이것이 낮추는 것이고 내려와서 세상에는 없는 가치이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큰~ 자인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